

가시밭길 뚫고 '꿈의 무대'로...양현종, 이제 생존이 숙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이 26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볼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LA에인절스와의 경기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6회 투구하고 있다.

텍사스, 로스터 변경하며 메이저리그 계약 체결해 에인절스전 4닝이닝 5피안타 1탈삼진 2실점 데뷔

안정 대신 도전을 택한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가시밭길을 뚫고 마침내 '꿈의 무대'에 섰다.

텍사스 구단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로스터 변경을 발표하면서 양현종과 메이저리그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가 2이닝 5실점으로 난조를 보인 뒤 불펜 투수를 대거 소모한 텍사스는 시카고 원정 때 '텍시 스쿼드'로 동행했던 양현종을 이날 홈경기를 앞두고 메이저리그로 불러들였다.

마침내 메이저리그 현역 26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양현종이 빅리그 마운트에 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날 에인절스전에 선발 등판한 조던 라일스는 2¼이닝 10피안타(2홈런) 7실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고, 텍사스 벤치는 곧바로 양현종을 투입했다.

3회초 2사 2, 3루의 위기에 등판한 양현종은 4¼이닝 5피안타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양현종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2020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진

출을 타진하는 한편 친정팀 KIA 타이거즈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월 초 KIA와 협상을 접었다. 메이저리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에 집중한 양현종은 지난 2월 중순 텍사스와 스포츠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네리) 소속에 따라 조건이 다른 계약을 맺었다. 메이저리그 승격 시 130만 달러를 받고, 인센티브 55만 달러 등 최대 185만 달러를 수령하는 조건이었다.

그는 한국 최고 좌완 에이스로서 위상과 안정적인 환경, 높은 연봉을 모두 포기한 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국으로 떠났다.

철저히 도전자의 입장에서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양현종은 5차례 시범경기 등판에서 10이닝을 던지며 12피안타(1홈런) 6실점 10탈삼진 3볼넷을 기록했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지 못한 양현종은 결국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양현종은 개막 이후 세 번이나 '텍시 스쿼드'에 포함됐다.

텍시 스쿼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규정이다. 선수 개인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텍시 스쿼드에 든 선수는 원정 경기 기간 빅리그 팀과 동행, 선수단과 훈련도 함께한다. 텍사스 로스터에 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빅

리그 팀에 합류가 가능하다.

2~5일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 13~16일 진행된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 경기에 텍시 스쿼드로 동행했던 양현종은 20~22일 에인절스, 24~26일 화이트삭스와 원정 경기 때에도 텍시 스쿼드에 이름을 올렸고, 홈으로 돌아온 이날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가시밭길을 뚫고 잠은 빅리그 등판 기회에서 양현종은 무난한 모습을 보였다. 홈런을 맞으며 2실점하기는 했지만, 빅리그 데뷔전이라는 중압감을 고려하면 준수한 성적이었다.

이제 빅리그에서 살아남는 것이 양현종의 숙제다.

26일과 27일 아리하라와 라일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했지만 텍사스 선발진은 올 시즌 기대 이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일 김슨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30으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리하라, 라일스, 마이크 폴네비치가 제 몫을 하고 있다. 한국계 데인 더닝도 1승 무패 평균자책점 3.06을 기록하며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양현종은 불펜으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텍사스는 불펜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텍사스의 팀 불펜 평균자책점은 5.42로 30개 구단 가운데 29위에 머물러 있다.

양현종이 불펜 투수로 나서며 믿음을 키운다면 선발진 진입도 꿈만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것이 양현종의 지상 최대 과제다.

뉴스

조선대학교 육상부, 전국 대학 대회서 종합 3위

멀리뛰기 이명하 '금'·이건우 '은'

조선대학교 육상부가 제75회 전국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멀리뛰기 국가대표인 대학 육상부 김명하 선수(3학년)가 최근 경북 예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멀리뛰기 경기에서 7m70cm를 뛰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대학 육상부 이건우 선수(2학년)는 7m31cm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남자대학교 혼성 10종 경기에서 김기훈 선수(1학년)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조선대 육상부는 400m(계주)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현우 부장교수는 "국가대표 김명하 선수는 현재 멀리뛰기 기록이 금상승 중이다. 올해 전국체전은 물론 앞으로 치러질 국제경기에서도 전망이 밝다"며 "대학 선수들의 활약을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명정기자



조선대학교 육상부 이명하 선수. (사진 제공 = 조선대학교)

NC 모창민, 전격 은퇴...14년 프로생활 마침표

2008년 프로 입단...2013년 NC 창단 멤버 "팀 방향성 생각, 팀과 후배들 도움주고파"

NC 다이노스 내야수 모창민(36)이 유니폼을 벗는다.

NC는 "장단 멤버 모창민이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구단에 따르면 모창민은 지난 22일 창원에서 NC 이동욱 감독, 김중문 단장과 면담하고 14년간의 프로 야구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정했다.

모창민은 구단을 통해 "이번 시즌 퓨처스에서 시작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줬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팀에 좋은 후배들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팀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팀과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총장중-광주제일고-성균관대를 졸업한 모창민은 2008년 신인지명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SK 와이번스에 지명, 프로에 뛰어들었다.

2013년 신생팀 특별지명으로 NC가 모창민을 선택하면서 야구 인생의 새 페이지를 열었다. 2013년 팀



의 1군 무대 도전부터 함께한 그는 2018시즌을 마친 뒤 3년, 최대 20억 조건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팀에 잔류했다.

통산 104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2, 773안타 92홈런 439타점의 성적을 냈다. 올해는 3경기에 출전해 6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2013년 4월2일 마산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나선 그는 1회 첫 타석에서 중견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쳐 팀의 창단

첫 안타를 기록했다. 2018년 10월6일 넥센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마산 구장의 마지막 끝내기 홈런, 2019년 3월26일 KT 위즈와 경기에서 창원 NC파크의 첫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되는 등 NC의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지난해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에서도 3경기에 나와 6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창단 첫 우승에 힘을 보탤었다.

모창민은 "지금까지 현역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주신 구단주님과 구단 관계자분들,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팬들에게 받은 응원과 사랑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야구선수 아내로 지금까지 고생하곤했던 시간을 버리고 응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딸 하은, 하을 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단은 모창민에게 남은 시즌 현장 프런트로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일정 기간 관련 교육을 받고, 전력분석과 프로 스카우트 업무를 하게 된다.

뉴스

전남볼링 "태극마크 달다"...국가대표 다수 선발

전남볼링 선수단이 2021년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2명, 상비군 2명, 후보선수 1명을 배출했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1년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국가대표로 광양시청 가수형과 백종윤이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남녀 각 8명씩 최종 선발되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 가수형은 4위, 백종윤은 8위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2010년 광주아시아인게임 3관왕이자,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한 최복음(광양시청)과 이혜미(고흥군청)는



(왼쪽부터)고흥군청 이혜미, 곡성군청 이영승, 광양시청 가수형, 광양시청 백종윤, 과양시청 최복음.

각각 남자 상비군, 여자 상비군으로 선발됐고, 곡성군청 이영승은 후보선수로 선발됐다.

전라남도볼링협회 박종남 회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정

말 최선을 다 했기에 태극마크라는 값진 결과를 맺었다"며 "국가대표에 선발된 선수들이 전남볼링과 한국볼링의 자긍심을 드높여주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박민지, 여자 골프 세계랭킹 7계단 상승...36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에서 우승한 박민지(23)가 여자 골프 세계랭킹 36위에 올랐다.

25일 경남 김해에서 끝난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투어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한 박민지는 26일자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43위보다 7계단 상승한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회에서 박민지와 연장전을 치른 끝에 준우승한 장하나는 22위에서 두 계단 오른 20위에 자리했다.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렛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에서 우승한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6위에서 5위로 점프했다.

세계랭킹 1~3위는 고진영, 박민비, 김세영으로 변화가 없었고, 9위 김효주도 자리를 지켜 한국 선수 4명이 10위 내에 들었다.